

##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정림  
(충남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2006년 및 2008년 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432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삶의 질 수준 등이 모두 열악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동거 남녀에 비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택, 경제활동, 빈곤,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해체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가족해체,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삶의 질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주최한 제2회 복지패널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교신저자: 박재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sky21@gfwri.or.kr)

■ 투고일: 2010. 4. 2    ■ 수정일: 2010. 5. 5    ■ 게재확정일: 2010. 5. 10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 가족해체는 개인적 문제로 인식되어 오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량 해고 및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가족해체가 사회 문제로 인식된 배경에는 짧은 시간에 걸쳐 급격하게 확산된데 따른 사회적 불안감, 즉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단위이기 때문에 가족해체는 곧 사회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원의 불행이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해체는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하에서 확산된 가족해체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외환 위기 극복 이후에도 가족해체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외환 위기로 촉발된 기업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노동시장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로 이어져 가족경제의 빈곤화와 가족해체를 확대시켰고 또는 가족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미혼세대의 증가와 가족해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결과는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배우자가 없는 가구가 각각 69.5%와 30.5%를 차지하였지만, 2030년에 이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63.5%로 6.0%p가 줄어든 반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6.0%p 증가하여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 없는 가구 중에서도 가족해체의 유형인 ‘이혼’에 의한 가구가 2007년 6.5%에서 2030년 10.4%로 3.9%p 증가하며, 미혼 가구주도 12.9%에서 16.4%로 3.5%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와의 사별에 의한 가구주는 같은 기간에 1.4%p(2007년 11.1%에서 2030년 9.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8). 이처럼 가족해체는 향후 배우자의 사별보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 등과 같은 형태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김혜영 외, 2008; 박재규, 2009).

가족해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요 내용은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록 불행한 결혼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선택한 이혼은 특히 여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빈곤화의 중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5). 가족해체와 빈곤성에 대한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빈곤을 비롯하여 정신적 및 육체적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이 남성에게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2006, 2008)를 이용하여 가족해체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국내 가족해체 현황 및 유형을 검토하였고, 2)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실태를 비롯하여 가족해체가 남성과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3)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을 모색하였다.

## II. 가족해체 관련 문헌검토

### 1. 가족해체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족구조에서 유배우자 가구와 배우자 사별에 의한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혹은 미혼상태에서 가구를 구성한 사례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유배우자 가구 비율은 2005년 70.6%에서 2010년 68.8%로, 그리고 2050년 63.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배우자 사별에 의한 가구 또한 2005년 11.4%에서 2010년 10.6%, 2050년 9.7%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와의 이혼에 의한 가구 비중은 2005년 5.6%에서 2010년 7.4%, 2050년 10.4%까지 증가하며, 또한 미혼가구 비율도 2005년 12.5%에서 2050년 1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가구에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미혼가구와 이혼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유배우자 및 배우자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5년 14.2%에서 2050년 23.2%로 9.0%p 증가가 예상되며, 같은 기간에 미혼에 의한 가구주

또한 22.9%에서 26.9%로 4.0%p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 비율은 2005년 44.3%에서 2050년 33.5%로 10.8%p 감소가 예상되며, 유배우자 여성가구주도 같은 기간에 18.5%에서 16.4%로 2.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남성가구주 또한 여성가구주와 같은 변화를 보이지만, 변화의 폭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의 남성가주는 2005년 9.6%에서 2050년 13.1%로 4.5%p가 증가할 예정이며, 이혼에 의한 남성가구 또한 3.2%에서 6.4%로 3.2%p가 증가할 예정이다. 반면에 유배우자 남성은 2005년 85.0%에서 2050년 78.2%로 6.8%p가 감소할 예정이며, 사별에 의한 남성가구주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2.2%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가구주 성별 및 혼인상태별 가구주

(단위: 천 가구, %)

		2005	2007	2010	2020	2030	2005	2007	2010	2020	2030
합	계	15,971	16,417	17,152	19,012	19,871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1,995	2,123	2,258	2,861	3,263	12.5	12.9	13.2	15.1	16.4
	유배우	11,268	11,414	11,799	12,493	12,615	70.6	69.5	68.8	65.7	63.5
	사 별	1,817	1,818	1,822	1,849	1,927	11.4	11.1	10.6	9.7	9.7
	이 혼	890	1,062	1,273	1,808	2,066	5.6	6.5	7.4	9.5	10.4
남	계	12,504	12,795	13,344	14,614	15,125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1,201	1,273	1,356	1,719	1,988	9.6	10.0	10.2	11.8	13.1
	유배우	10,625	10,751	11,105	11,736	11,834	85.0	84.0	83.2	80.3	78.2
	사 별	280	281	284	304	338	2.2	2.2	2.1	2.1	2.2
	이 혼	397	490	598	857	965	3.2	3.8	4.5	5.9	6.4
여	계	3,467	3,622	3,809	4,397	4,746	100.0	100.0	100.0	100.0	100.0
	미 혼	794	850	902	1,143	1,275	22.9	23.5	23.7	26.0	26.9
	유배우	643	662	694	758	780	18.5	18.3	18.2	17.2	16.4
	사 별	1,537	1,537	1,537	1,545	1,589	44.3	42.4	40.4	35.1	33.5
	이 혼	493	573	675	951	1,102	14.2	15.8	17.7	21.6	23.2

자료: 통계청(2008).

이처럼 가족해체와 함께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성가구주 비율은 1980년 14.7%에서 1990년 15.7%로 10년 동안 1.0%p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00년 18.5%까지 증가하여 1990-2000년 사이에 3.2%p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여성가구주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실직과 가족경제의 어려움으로 가족해체가 확산되었고, 가족해체를 겪은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가족형성이 어려워 계속 해체상태를 지속하기 때문이다(정기선 외, 2000; 김승권 외, 2001).

그러나 최근 여성가구주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이혼이나 결혼지연 혹은 기피에 의한 것인데, 특히 가족가치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형성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달리 자신의 인생을 가족형성 및 유지에 예측시키기보다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라 가족형성 및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공선영 외, 2006). 오늘날 젊은 세대의 '결혼 필연성'에 대한 태도가 크게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지위가 개선되면서 미혼세대로 남아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이혼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미혼이나 이혼에 의한 여성 가구주가 크게 증가하였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생활변화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별거 등과 같은 가족해체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경제적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우자 상실에 따른 가족해체 연구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써 실질적 소득감소와 경제적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의 경우 실제로 소득감소를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소득변화에 대한 와이즈만(Weitzman, 1977) 연구에 의하면, 이혼을 겪은 여성의 생활수준이 3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한다(김혜영 외, 2008 재인용). 여성가구주 빈곤율 또한 이혼 전 13%에서 이혼 후 32%로 19%p가 증가하여 배우자 상실에 따른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홍식, 2003).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인적자원에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과 같은 가족 돌봄노동을 전담한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기회 제약으로 경제적 중속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이다. 즉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미취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만성적 재정적자를 비롯하여 정신적인 불안과 우울, 고통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이 있고 소득이 높은 여성은 이혼할 경우라도 빈곤이나 건강문제 등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Kessler & Essex, 1982; Booth & Amato, 1991; 전신현).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가구주 중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자영업이나 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빈곤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박재규, 2009).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가구주 중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시일용직보다 정규직에 종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윤성호, 2008).

가족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3배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가구주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고 한다(석재은, 2003). 여성가구주 내부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결과는 여성가구주의 내부가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최근 제한적인 수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8; 문현숙 외, 2000; 박재규, 2009; 윤홍식, 2004). 예를 들면,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가구주 252명을 대상으로 빈곤결정요인을 분석한 김혜영 외(2008) 연구에 의하면, 여성가구주의 교육수준, 미성년아동 수, 취업여부, 이전소득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성년 아동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고, 반면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가구주는 그렇지 않은 여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상과 같이 배우자 상실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경제적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재규(2009)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 여성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을 비롯하여 자녀 여부(부적 영향), 경제활동참여 등에 따라 빈곤상황이 차별적인 반면, 배우자의 사별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주택형태 및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빈곤상황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가족해체는 또한 정신적 건강을 비롯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 심리적 긴장과 고통, 우울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혼에 따른 우울 관련 연구에 의하면, 양자간의 관계가 일관성을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혼상태의 여성가구주는 경제활동참여 기회

제약으로 남성보다 재정적으로 심각한 압력을 받고, 또한 자녀양육 부담으로 긴장상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Thoist, 1987; Turner & Avison, 1989; Smock, 1994; 문현숙 외, 2000). 특히 경제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있는 여성이 이혼을 겪을 경우 재정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편견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전신현, 2007).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혹은 별거, 그리고 배우자의 사별 후 일상생활 적응에 해당되는 삶의 질, 혹은 생활만족도 연구에서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즉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여성가구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며, 특히 여성의 정체감이 가정 내에 한정된 상황에서 새롭게 도전받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적응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된다고 한다(옥선화 외, 2004). 그러나 이혼 여성보다 남성의 생활만족도가 더 낮다는 연구도 발견되고 있다. 왜냐하면 남성은 결혼에서 얻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별이나 이혼 후 생활만족도가 낮고, 특히 건강의 측면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White, 1992; 옥선화·성미애 연구에서 재인용).

### Ⅲ.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복지패널자료 중에서 2006~2008년 동안 배우자의 사별, 이혼 및 별거 등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가구주와 가족해체를 경험하지 않은 일부 가구주로 구성되었다. 즉 본 연구의 가족해체 가구주는 2006년 조사당시 배우자와 동거상태에 있다가 2008년 조사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남녀 가구주 282명이다. 또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가구주의 건강과 삶의 질 상태를 그렇지 않은 가구주와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배우자와 동거를 유지하고 있는 남녀가구주 150명을 단순무작위로 추출하여(SPSS 프로그램 이용)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방법으로 본 연구는 432명의 분석자료를

구축하여 가족해체의 유무와 유형 등에 따라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가족해체가 남녀 가구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표 2>에 제시한 변수를 이용하였다.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변수는 각각 9개 문항과 6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방법을 통해 구성하였다.<sup>1)</sup>

표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N=432)

변수	측정
정신적 건강	7개 문항(부정적 태도) 1. 극히 드물다 ~ 4. 대부분 그렇다 2개 문항(긍정적 태도) 1. 대부분 그렇다 ~ 4. 극히 드물다
육체적 건강	1. 아주 건강하지 않다 ~ 5. 아주 건강하다
삶의 질	6개 문항 만족도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성별	1. 남성 2 여성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 3. 전문대졸, 4 대학교이상
연령	1. 30대 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 5. 70대 이상
혼인상태	1. 배우자 동거, 2. 사별, 3. 이혼, 4. 별거
거주지역	1. 대도시, 2. 도시, 3. 군지역, 4. 도농복합지역
소득	만원(가처분소득)
주택형태	1. 자가, 2. 전세, 3. 월세(보증부), 4. 월세(사글세), 5. 기타
아동 수	명(6세 이하 연령 자녀 수)
빈곤율	월평균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2008년 자료 적용)
경제활동	1. 상용직, 2. 일용임시직, 3. 자영무급가족종사, 4. 실직자, 5. 비경제활동

1) 본 연구의 정신건강은 한국복지패널 질문지에서 “우울증” 척도를 이용하였다. 복지패널 질문지는 원래 20개 문항을 11개로 축소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가 매년 .8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의 차가운 시선’ 과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느낌’ 문항을 정신건강척도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두 문항보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95% 이상 높아 응답자의 정신건강 차별성을 약화시키는 효과 때문이며, 또한 삶의 질 척도 구성에도 소득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업만족’ 문항을 제외시켰다.



먼저 정신적 건강은 9개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주성분 분석과 직각회전)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표 3>과 같이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적 건강 관련 9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analysis)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rotation)에 의하면, 고유치(Eigenvalues) 1이 넘는 요인이 2개 추출되었고, 2개 요인에서 각 문항 모두 0.5 이상으로 높았다. 각 요인의 설명력은 최고 67.76%에서 최소 16.11%로 총 83.87%로 나타났고, 요인 1 및 요인 2에 대한 신뢰 계수(Cronbach's Alpha)는 .946과 .832로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요인 1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요인 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높아 하나의 척도 구성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 문항과 긍정적 문항(역코딩) 모두를 사용하여 하나의 정신적 건강 척도를 구성하였고, 정신적 건강 척도의 신뢰계수 또한 .952로 높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의 질 척도 구성 또한 건강 척도 구성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고유치 값이 1.0이 넘는 요인이 1개 추출되었고, 모든 문항이 0.5 이상으로 높았으며, 1개 요인 설명력은 62.25%이며, 신뢰도 계수 또한 .898로 높았다.

표 3. 정신적 건강 및 삶의 질 구성 내용,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N=432)

정신적 건강 내용	요인 1(부정)	요인 2(긍정)	삶의 질	요인 1
식욕이 없음	.857	-.127	건강만족	.709
상당히 우울	.913	-.185	가족수입 만족	.828
모든 일이 힘들	.874	-.241	주거환경 만족	.809
외로움	.878	-.166	가족관계 만족	.792
마음이 슬픔	.908	-.200	사회적 친분 만족	.789
나를 싫어함	.935	.164	여가생활 만족	.802
일에 대한 두려움	.935	-.159		
불만 없이 생활	.508	.782		
비교적 잘 지냄	.519	.781		
고유치(Eigenvalues)	6.10	1.45		3.74
설명력(%)	67.76	16.11		62.25
신뢰도	.946	.832		.898

## IV. 자료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혼인상태 차이 분석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6~2008년 사이에 가족해체를 경험한 282명과 그렇지 않은 150명 등 총 43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혼인상태 차이를 분석한 <표 4>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여성이 59.5%로 남성의 40.5%에 비해 19.0%p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사별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가족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우자 없는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분석결과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유배우자 집단의 경우 남성이 44.6%로 여성의 28.0%에 비해 26.6%p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난 2년 사이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여성이 51.8%로 남성의 22.9%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36.33$ ,  $p<.001$ ).

다음으로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63.8%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24.1%, 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7.7%, 전문대학 학력이 4.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혼인상태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chi^2=89.28$ ,  $p<.001$ ). 즉 유배우 집단의 경우 대학교 중퇴 또는 그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78.8%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 24.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53.8%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응답자 3.0%에 비해 50.8%p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상태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가 발견되고 있다. 배우자와 이혼한 응답자 중에는 상대적으로 고졸 학력자가 많았고,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전문대학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1.9세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분포에서 70대 이상이 3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60대가 22.0%, 50대 15.7%, 40대 14.6%, 그리고 30대 이하가 9.0%로 가장 적었다. 이런 결과 또한 응답자

의 혼인상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chi^2=102.21, p<.001$ ). 유배우자의 경우 30대 이하 및 40대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 상태에 있는 경우는 40~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경우는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의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31.9%, 그리고 군지역과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각각 22.9%와 3.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chi^2=10.13, p>.05$ ).

표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혼인상태 차이 분석 (단위: %, 명)

변수	범주	혼인상태						검증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합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44.6	22.9	17.7	14.9	175(40.5)	100.0	$\chi^2=36.33$ $p<.001$
	여성	28.0	51.8	11.7	8.6	257(59.5)	100.0	
교육수준	중졸 이하	24.2	53.8	10.3	11.7	273(63.8)	100.0	$\chi^2=89.28$ $p<.001$
	고졸 및 중퇴	46.6	17.5	27.2	8.7	103(24.1)	100.0	
	전문대졸 및 중퇴	52.6	21.1	10.5	15.8	19(4.4)	100.0	
	대학교 중퇴 및 이상	78.8	3.0	9.1	9.1	33(7.7)	100.0	
연령	30대 이하	74.4	5.1	17.9	2.6	39(9.0)	100.0	$\chi^2=102.21$ $p<.001$ (평균=61.9세)
	40대	49.2	9.5	23.8	17.5	63(14.6)	100.0	
	50대	36.1	26.4	20.8	16.7	72(16.7)	100.0	
	60대	29.5	46.3	13.7	10.5	95(22.0)	100.0	
	70대 이상	22.1	62.6	6.7	8.6	163(37.3)	100.0	
거주지역	대도시 지역	32.6	38.7	15.5	13.3	181(41.9)	100.0	$\chi^2=10.13,$ $p>.05$
	시 지역	36.2	37.0	16.7	10.0	138(31.9)	100.0	
	군 지역	36.4	48.5	8.1	7.1	99(22.9)	100.0	
	도농복합지역	35.7	28.6	14.3	21.4	14(3.2)	100.0	
합계		34.7	40.0	14.1	11.1	432(100.0)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및 혼인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주거형태에서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가 49.1%로 1/2 수준으로 낮은 반면 나머지 1/2 중에는 보증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이 19.4%, 전세 거주자가 14.6%, 기타 형태가 13.0%, 그리고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3.9%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와 혼인상태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배우자 및 배우자와 사별 응답자의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전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배우자와 사별한 응답자의 경우 무상 주택과 같은 기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배우자와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는 월세(보증금)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월세(사글세)로 사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 및 소득수준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즉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가 47.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특히 고령 인구가 표본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영업이나 일용직, 상용직 종사자가 비슷하게 15~19% 사이에 분포하였고, 나머지 3.0%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제활동상태 또한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용직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중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혹은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월평균소득은 177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월평균가처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2%, 그리고 150만원 미만의 경우는 57.9%를 차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300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19.2%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약 20% 정도는 150~299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수준은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유배우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상, 특히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도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많은 반면 50만원 미만으로 낮은 사람도 많았다. 반면에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빈곤상태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에 처한 응답자가 24.5%로 높은 편이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이지만 언제든지 빈곤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차상위계층도 25.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곤상황은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배우자의 사별 혹은 별거 중인 사람의 빈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한 응답자

표 5.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단위: %, 명)

변수	범주	혼인상태						검증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합계		
						빈도	비율	
주거형태	자가	39.6	44.3	9.0	7.1	212(49.1)	100.0	$\chi^2=65.18$ p<.001
	전세	44.4	39.7	11.1	4.8	63(14.6)	100.0	
	보증부월세	32.1	26.2	28.6	13.1	84(19.4)	100.0	
	사글세월세	11.8	23.5	17.6	47.1	17(3.9)	100.0	
	기타	16.1	50.0	14.3	19.6	56(13.0)	100.0	
경제활동	상용직	67.7	9.7	16.1	6.5	62(14.4)	100.0	$\chi^2=79.80$ p<.001
	임시일용자활	29.4	26.5	22.1	22.1	68(15.7)	100.0	
	자영업무급가족	46.3	34.1	11.0	8.5	82(19.0)	100.0	
	실업자	38.5	30.8	15.4	15.4	13(3.0)	100.0	
	비경제활동인구	21.7	56.5	12.1	9.7	207(47.9)	100.0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5.8	62.3	17.4	14.5	69(16.0)	100.0	$\chi^2=79.66$ p<.001 (평균 = 177만원)
	50~99만원	24.8	53.2	10.1	11.9	109(25.2)	100.0	
	100~149만원	31.9	44.4	12.5	11.1	72(16.7)	100.0	
	150~199만원	36.2	31.9	17.0	14.9	47(10.9)	100.0	
	200~299만원	55.8	15.4	21.2	7.7	52(12.0)	100.0	
	300만원 이상	60.2	20.5	12.0	7.2	83(19.2)	100.0	
빈곤율	최저생계비 이하	17.0	50.9	12.3	19.8	106(24.5)	100.0	$\chi^2=36.88$ p<.001
	최저생계비 150% 이하	34.5	46.4	13.6	5.5	110(25.5)	100.0	
	최저생계비 250% 이하	38.5	35.6	14.4	11.5	104(24.1)	100.0	
	최저생계비 250% 이상	48.2	27.7	16.1	8.0	112(25.9)	100.0	
합 계		34.7	40.0	14.1	11.1	432(100.0)	100.0	

중에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비율이 62.3%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최저생계비 이하 상태에 있는 사람이 19.8%로 최저생계비 150% 이상인 사람들 10% 수준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비율은 17.0%로 낮은 반면 최저생계비 250% 이상인 비율이 48.2%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내용 중에서 본 연구는 교육수준, 경제활동, 빈곤율 등이 성별 혼인상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교육수준과 성별 혼인상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116.2$ ,  $p<.001$ ). 즉

표 6. 응답자의 성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혼인상태 차이

(단위: %, 명)

변수	범주	성별혼인상태										검증
		남성				여성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유배우자	사별	이혼	별거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빈도	비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1.0	11.0	2.6	5.9	13.2	42.9	7.7	5.9	27.3	100.0	$\chi^2=116.2$ , $p<.001$
	고졸	28.2	6.8	19.4	5.8	18.4	10.7	7.8	2.9	10.3	100.0	
	전문대졸	26.3	10.5	5.3	15.8	26.3	10.5	5.3	-	1.9	100.0	
	대학교 이상	42.4	3.0	9.1	3.0	36.4	-	-	6.1	3.3	100.0	
	합계	18.2	9.3	7.2	6.1	16.8	30.4	7.0	4.9	42.8	10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51.6	8.1	9.7	1.6	16.1	1.6	6.5	4.8	6.2	100.0	$\chi^2=120.2$ , $p<.001$
	임시일용자활	13.2	8.8	13.2	11.8	16.2	17.6	8.8	10.3	6.8	100.0	
	자영업무급가족	23.2	6.1	7.3	4.9	23.2	28.0	3.7	3.7	8.2	100.0	
	실업자	30.8	15.4	7.7	15.4	7.7	15.4	7.7	-	1.3	100.0	
	비경제	6.8	10.6	4.3	5.3	15.0	45.9	7.7	4.3	20.7	100.0	
합계	18.1	9.3	7.2	6.0	16.7	30.8	6.9	5.1	43.2	100.0		
빈곤 율	최저생계비 이하	7.5	10.4	8.5	9.4	9.4	40.6	3.8	10.4	10.6	100.0	$\chi^2=45.9$ , $p<.001$
	최저생계비 150% 이하	19.1	12.7	3.6	2.7	15.5	33.6	10.0	2.7	11.0	100.0	
	최저생계비 150% 이상	20.2	6.7	7.7	5.8	18.3	28.8	6.7	5.8	10.4	100.0	
	최저생계비 250% 이상	25.0	7.1	8.9	6.3	23.2	20.5	7.1	1.8	11.2	100.0	
	합계	18.1	9.3	7.2	6.0	16.7	30.8	6.9	5.1	43.2	100.0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학교 이상 학력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별거 상황에 있는 남성의 경우도 전문대학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성별 혼인상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chi^2=120.2$ ,  $p<.001$ ).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은 상용직 종사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한 남성은 실직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빈곤율과 성별 혼인상태 관계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유배우자 남녀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은 반면 최저생계비 150% 이상인 사람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경우 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이 각각 40.6%와 33.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별거 중인 남녀 모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유배우자 남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에 종사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 살고 있는 여성의 경우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배우자 사별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았고, 비경제활동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은 반면 남성은 실직자가 많았다. 배우자와 이별한 남성은 고졸 및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최저생계비 이하 혹은 최저생계비 250%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여성은 중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에 자영업이나 혹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고,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이 많았다. 배우자와 별거 중인 남성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많은 반면 여성은 중졸 이하 혹은 대학교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녀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2. 응답자의 결혼해체에 따른 건강과 삶의 질 차이

본 연구는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남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 유형별 및 가족해체 성별 건강과 삶의 질 차이 모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먼저 가족해체 여부에 따른 육체적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응답자의 경우 건강상태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사별의 경우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고령층에서 배우자와의 사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해체에 따른 성별 육체적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일지라도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육체적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를 상실한 응답자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배우자의 사별, 별거, 이혼 여성 순으로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도 가족해체의 유형 및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배우자와 이혼한 응답자의 정신건강이 가장 좋지 않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의 사별이나 혹은 별거 중에 있는 응답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반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응답자의 경우 정신건강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로 구분하여 정신건강을 비교하면 성별 유형에 따라 다소 차별적이다. 즉 유배우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신건강이 좋은 편이지만, 이혼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정신건강이 나쁜 반면 사별 여성의 경우는 사별 남성보다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거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 수준도 가족해체 유형 및 가족해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는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응답자, 배우자와 별거 중인 응답자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성별 삶의 질 수준도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성 응답자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 응답자,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 응답자, 배우자와 별거 중인 남성 응답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배우자와 별거 중인 여성 응답자를 비롯하여 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한 여성이 낮았고, 다음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삶의 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수준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람 중에



표 7. 응답자의 혼인상태별 건강과 삶의 질 차이에 대한 변량분석

(단위: 빈도, 점)

변수	범주		빈도	평균	검증결과	자유도
육체적 건강	여성	유배우자	150	3.53	F=23.64, p<.001	df=3, 428
		배우자 사별	173	2.59		
		배우자 이혼	61	3.10		
		배우자 별거	48	3.08		
	남성	유배우자	78	3.69	F=13.08, p<.001	df=7, 427
		사별	40	3.00		
		이혼	31	3.42		
		별거	26	3.23		
	여성	유배우자	72	3.34	F=13.08, p<.001	df=7, 427
		사별	133	2.47		
		이혼	30	2.77		
		별거	22	2.91		
	합계		432	3.04		
정신적 건강	여성	유배우자	144	2.00	F=5.25 p<.001	df=3, 412
		배우자 사별	167	2.34		
		배우자 이혼	59	2.35		
		배우자 별거	46	2.25		
	남성	유배우자	75	1.96	F=2.30, p<.05	df=7, 408
		사별	39	2.29		
		이혼	31	2.37		
		별거	26	2.24		
	여성	유배우자	69	2.03	F=2.30, p<.05	df=7, 408
		사별	128	2.36		
		이혼	28	2.33		
		별거	20	2.27		
	합계		416	2.21		
삶의 질	여성	유배우자	150	3.25	F=8.60, p<.001	df=3, 422
		배우자 사별	168	2.77		
		배우자 이혼	60	3.06		
		배우자 별거	48	2.86		
	남성	유배우자	78	3.32	F=5.82, p<.001	df=7, 418
		사별	40	2.92		
		이혼	30	3.39		
		별거	26	3.04		
	여성	유배우자	72	3.17	F=5.82, p<.001	df=7, 418
		사별	128	2.72		
		이혼	30	2.73		
		별거	22	2.64		
	합계		426	2.99		

가족해체 유형에 따라 성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육체적 건강의 경우 가족해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고, 정신적 건강의 경우 가족해체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하였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정신적 건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 수준에서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는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았다.

### 3.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가족해체가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검토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요 변수들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난 동시에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삶의 질 수준은 육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높았고( $r=.352, p<.01$ ), 정신적 건강이 열악할수록 낮았으며( $r=-.253, p<.01$ ), 가난하지 않거나 혹은 아동이 많을수록 건강은 좋았다(각각  $r=.335, p<.01$ ;  $r=.145, p<.01$ ). 육체적 건강은 정신건강이 나쁠수록 좋지 않았고( $r=-.336, p<.01$ ), 가난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아동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350, p<.01$ ;  $r=.236, p<.01$ ). 그러나 정신적 건강은 가난할수록 열악하였다( $r=-.265, p<.01$ ).<sup>2)</sup>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는 건강과 삶의 질에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해체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의 회귀분석의 경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족해체 변수를 사용해 분석하였는데,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들 간의 Durbin-Watson 계수가 2.031에서 2.068 사이로 낮아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육체적 건강 관련 회귀분석 모델1에 의하면, 변수의 설명력은 약 34%이며, 연령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거형태, 경제활동, 빈곤율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2) 회귀모델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0.7 이상 높은 경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들은 서로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호정, 2005).

고 있었다.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다(각각  $\beta = -.204, p < .001$ ;  $\beta = -.146, p < .05$ ). 거주지역의 경우 광역도시에 비해 농촌(군)지역 거주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주거형태에서는 자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보증금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beta = -.098, p < .05$ ). 경제활동에 따라 육체적 건강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52, p < .001$ ). 그밖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육체적 건강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48, p < .01$ ).

다음으로 모델1에 가족해체 변수를 추가한 분석 모델2에 의하면, 설명력은 모델1에 비해 3.5%p가 증가하여 약 37%로 나타났고, 연령 변수를 비롯하여 주택형태, 빈곤율,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할 때 가족해체는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혹은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267, p < .001$ ;  $\beta = -.130, p < .01$ ). 이처럼 가족해체는 육체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 또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에 사용한 각 변인들 간의 Durbin-Watson 계수가 1.915에서 1.993 사이로 낮게 나타났다. 먼저 회귀분석 모델1에 의하면, 설명력은 17.1%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활동, 빈곤율 등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beta = .218, p < .05$ ),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실업자( $\beta = .142, p < .01$ ) 혹은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았고( $\beta = .193, p < .01$ ), 경제적으로 가난할수록 정신건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4, p < .01$ ). 반면 광역도시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좋았다( $\beta = -.097, p < .06$ ).

모델1에 가족해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2에 의하면, 설명력이 6.3%p가 증가하여 23.4%로 나타났고, 거주지역, 경제활동, 아동 수, 빈곤율, 그리고 가족해체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 수가 많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beta = .098, p < .06$ ), 상용직에 비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열악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의 정신건강이 열악

하였고( $\beta=.187, p<.001$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혹은 이혼한 여성의 정신건강도 열악하게 나타났다(각각  $\beta=.129, p<.05$ ;  $\beta=.108, p<.05$ ). 이와 같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지역, 경제활동, 빈곤율, 아동 수, 가족해체 중에서 특히 가족해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15)

변수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상 수	4.689***		4.708***		10890**		1.863***	
연령	-0.15	-.204***	-.257	-.242***	-.001	-.001	.101	.005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331	-.146*	-.174	-.077	1.003	.218*	.771	.167
고졸	-.084	-.033	-.036	-.182	.134	.026	-.174	-.034
전문대졸	.240	.045	.270	.051	-.353	-.033	-.411	-.038
거주지역(광역시)								
시지역	-.071	-.030	-.077	-.033	-.460	-.097+	-.498	-.105*
군지역	-.251	-.097*	-.230	-.088	.108	.020	.155	.029
도농복합지역	-.164	-.027	-.221	-.036	.801	.064	.814	.066
주택유형(자가)								
전세	-.126	-.041	-.101	-.033	-.185	-.029	-.204	-.032
월세(보증금)	-.271	-.098*	-.272	-.098*	.233	.040	.023	.004
월세(사글세)	-.263	-.047	-.303	-.054	.022	.002	-.291	-.026
기타	-.230	-.071	-.183	-.056	.094	.014	-.133	-.020
경제활동(상시직)								
일용임시직	-.031	-.004	.116	.039	.082	.013	.171	.028
자영무급가족	-.092	-.033	-.005	-.002	.104	.018	.053	.009
실업자	-.425	-.066	-.352	-.055	1.833	.142**	1.645	.128**
비경제활동	-.553	-.252***	-.343	-.157*	.855	.193**	.623	.176**
아동 수	-.096	-.015	-.008	-.011	.125	.083	.147	.098+
빈곤율	.108	.148**	.119	.164**	-.200	-.134**	-.214	-.143**
혼인상태(남성유배우자)								
남성 사별			-.222	-.059			.646	.086
남성 이혼			-.261	-.061			1.593	.187***
남성 별거			-.162	-.035			.653	.071
여성 유배우자			-.256	-.087			-.021	-.004
여성 사별			-.634	-.267***			.620	.129+
여성 이혼			-.561	-.130**			.948	.108*
여성 별거			-.396	-.080			.386	.038
F	12.417***		10.104***		4.894***		4.272***	
R <sup>2</sup>	.339		.374		.171		.234	
R <sup>2</sup> Change	-		.035		-		.063	
Durbin-Watson	2.031		2.068		1.915		1.993	

+ p<.06,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가족해체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여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각 변인들 간의 Durbin-Watson 계수가 2.046에서 2.087 사이로 낮아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모델1에 의하면,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빈곤율 등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전체 설명력은 23%로 나타났다. 먼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 $\beta = -.386$ ,  $p < .01$ ). 그리고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자영무급가족 종사자의 삶의 질 수준만이 유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4$ ,  $p < .05$ ).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3$ ,  $p < .001$ ).

다음으로 모델1에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변수를 추가한 모델2에 의하면, 전체 설명력은 모델1에 비해 3.9%p 증가하여 26.6%로 나타났고 분석모델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 = 7.098$ ,  $p < .001$ ). 모델2의 경우 모델1의 결과와 같이 교육수준, 거주지역, 경제활동, 빈곤율 등 거의 동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롭게 추가한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변수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정신적 건강의 영향력( $\beta = -.362$ ,  $p < .01$ )이 육체적 건강( $\beta = .102$ ,  $p < .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그리고 정신건강이 나쁘지 않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중요하며, 정신적 건강상태가 육체적 건강보다 삶의 질 수준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2에 가족해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델3에 의하면, 전체 설명력은 모델2에 비해 3.1%p 증가하여 29.7%로 나타났고 분석모델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 = 5.334$ ,  $p < .001$ ). 그러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남성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비롯하여 배우자가 없는 여성 모두의 삶의 질 수준은 낮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즉 가족해체가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변수의 영향력에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수준 변수의 경우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경제활동과 빈곤율 변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변수의 영향력은 모델2에 비해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beta = .169$ ,  $p < .05$ ;  $\beta = -.456$ ,  $p < .01$ ).

표 9.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412)

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B	$\beta$	B	$\beta$	B	$\beta$
상수	3.276***		2.353***		2.421***	
연령	.001	.001	.038	.044	.040	.069
교육수준(대졸 이상)						
중졸 이하	-.715	-.386**	-.700	-.377***	-.664	-.358***
고졸	-.167	-.080	-.195	-.094	-.218	-.105
전문대졸	-.240	-.056	-.338	-.079	-.324	-.076
거주지역(광역시)						
시지역	.101	.095	.074	.039	.056	.029
군지역	.061	.029	.055	.025	.052	.024
도농복합지역	-.110	-.022	-.065	-.014	-.091	-.018
주택유형(자가)						
전세	-.098	-.039	-.101	-.040	-.100	-.039
월세(보증금)	-.146	-.065	-.103	-.045	-.132	-.058
월세(사글세)	-.153	-.034	-.135	-.030	-.183	-.041
기타	-.121	-.064	-.078	-.029	-.094	-.035
경제활동(상시직)						
일용임시직	.014	.006	.075	.031	.082	.034
자영무급가족	.304	.134*	.381	.166*	.378	.166*
실업자	-.074	-.014	-.033	-.006	-.025	-.005
비경제활동	-.086	-.048	-.059	-.033	-.082	-.046
아동 수	-.007	-.011	.003	.004	.006	.010
빈곤율	.116	.193***	.099	.163**	.096	.164**
육체적 건강			.091	.102*	.099	.169*
정신적 건강			-.170	-.362**	-.186	-.456**
혼인상태(남성유배우자)						
남성 사별					-.028	-.009
남성 이혼					.165	.048
남성 별거					.027	-.007
여성 유배우자						
여성 사별					-.122	-.063
여성 이혼					-.094	-.026
여성 별거					-.153	-.037
F	7.046***		7.098***		5.334***	
R <sup>2</sup>	.227		.266		.297	
R <sup>2</sup> Change	-		.039		.031	
Durbin-Watson	2.087		2.020		2.046	

\* p<.05, \*\* p<.01, \*\*\* p<.001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해체가 여성과 남성의 삶의 질에 직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족해체 성별 유형 변수는 새롭게 추가하였을 때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변수가 삶의 질에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가족해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추정은 변량분석에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및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이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람이나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의 질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에서 그 근거를 일정 부분 찾을 수 있다.

## V. 연구결과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가족해체가 남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한 복지패널자료 중에서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배우자를 상실한 남녀 가구주 282명과 배우자와 동거하는 가구주 150명 등을 대상으로 건강과 삶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해체는 남녀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빈곤에 차별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분석에서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삶의 질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가족해체와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변수를 함께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가족해체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더 강화되어 나타났다. 그 밖에도 본 연구는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빈곤 차이를 비롯하여 주택이나 경제활동 유형 등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녀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혼인상태에 따른 빈곤실태 분석에 의하면, 유배우자 남성과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하는 사람이 적은 반면, 배우자와 사별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많았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비율이 높은 것은 연령 효과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의 빈곤이 높은 것은 기존 연구결과와 비슷하며(박재규, 2008), 이들 여성의 경우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별거상태에 있는 여성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경우 주변 사람(통장 등)의 입증을 통해 자녀 양육 관련 재정지원을 비롯한 취업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족해체 상태에 있는 사람의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삶의 질 수준 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가구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옥선화 외, 2004; 문숙현 외, 2007). 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육체적 건강상태가 가장 열악하였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건강이 열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오랫동안 생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인의 건강을 위한 지역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 도입과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여성 고령층 노인을 대상으로 육체적 건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재가서비스의 경우 고령층 여성노인의 건강 개선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신적 건강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하였거나 혹은 이혼한 사람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 모두와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혹은 별거상태에 있는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가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석대상의 남성은 상대적으로 가족해체 이후 새로운 가족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사례만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이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해체를 경험한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넓을 지라도 주위 사람과의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전신현, 2007). 따라서 이혼 남성을 비롯하여 이혼 여성 그



리고 사별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최근 도입한 이혼숙려기간 이용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경우 이혼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을 제공하거나 혹은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적 치료와 취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응답자의 연령을 비롯하여 주택형태, 빈곤율, 혼인상태가 육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여가에 가족해체도 부분적으로 육체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주택이 열악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사별이나 혹은 이혼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즉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던 점을 고려할 때(박재규, 2009),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공급정책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구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성인지 정책 도입 및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해체를 비롯하여 경제활동 참여 등이 정신적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남성에 비해 배우자와 이혼한 남녀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상시직 종사자에 비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사람의 정신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힘들거나 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가사 및 돌봄노동에 종사하다가 지금까지 생계를 담당하던 남성 배우자와 결별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 결과는 또한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발전하기 때문이다(문현숙 외, 2000).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취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며, 배우자와 이혼한 남성에 대한 상담지원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박재규는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의 건강, 다문화, 성평등이며, 현재 다문화 및 성별영향평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E-mail: pchaekyu21@hanmail.net).

이정림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학위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환경사회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E-mail: 96jung@hanmail.net).

## 참고문헌

- 공선영, 박재규, 윤연정(2006). 경기도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 김승권, 이태진, 김유경, 송수진(2001). 최근 가족해체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호정(2005).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 김혜영, 변화순, 윤희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63.
- 문현숙, 김득성(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4(6), pp.197-211.
- 박경애(2000). 한국의 이혼율 추이와 의미. 한국인구학, 23(1), pp.5-29.
- 박재규(2009).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여성연구, 77(2), pp.109-141.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67-194.
- 손의성(2007).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pp.289-322.
- 옥선화, 성미애(2004). 20,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생활만족도와 건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4(11), pp.167-187.
-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복지학, 22(4), pp.67-94.
- 윤희식(2003) 이혼 및 별거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3, pp.51-63.
- \_\_\_\_\_(2004).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와 공·사적 소득이전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56(2), pp.5-27.
- 정기선(2000). 경제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2), pp.389-416.
- 전신현(2007). 이혼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차이. 보건과 사회과학, 20, pp.5-27.
- 통계청(2008). 2005-2030 장래가구추계 결과. 대전: 통계청.

- Amato, P. R. (2000). The Consequence of Divorce for Adult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pp.1269-1287.
- Thoits, P. A. (1987). Gender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Control and Distress: Common Stress versus Unique Stress Explan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pp.7-22.
- Turner, R. J. & W. R. Avison. (1989). Gender and Depression: Assessing Exposure and Vulnerability to Life Events in a Chronically Strained Populat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7, pp.443-455.

# Differential Gender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Park, Chaekyu**

(Gyeonggi-do Family and Women's  
Research Institute)

**Lee, Jeongri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men and women's health and quality of life. In order to do this work,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by Kor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2008, respectively. That i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432 persons which are composed both of 283 persons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for 2 years from 2006 to 2008 and of 150 ones persons from ordinary family

From data analysis, this study foun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s and the quality of life experienced family disorganization are considerably worsen, and women gotten divorced or lived separately from their husbands are much poor in particula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respondents' housing type, status of employment,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divorced or bereaved women was worsen, and the mental health of divorced men was also worsen. Although the variable of family disorganization is not significant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it seems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

**Keywords:** Family Disorganization,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Quality of Life